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국어 문제를 해결한다.

항목	
1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오류 없이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가?
2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한글 맞춤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기본 원리에 대해 학습한 것을 연계하고 있는가?
3	실제 국어생활에서 자주 혼동되는 표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의 조항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가?
4	'공통국어1'의 음운 변동 관련 성취기준에서 학습한 지식과 연계된 조항을 다루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있는가?
5	자신의 국어생활을 개선하고 이러한 성찰을 생활화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안내하거나 이를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구조화된 점검표나 성찰 일지, 자기 보고서 등 다양한 평가 도구

[성취기준 해설]

이 성취기준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국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교양 있는 표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학교 1~3학년 '국어'의 한글 맞춤법 관련 성취기준에서 한글 맞춤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기본 원리에 대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국어생활에서 자주 혼동되는 표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의 조항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공통국어1'의 음운 변동 관련 성취기준에서 학습한 지식과 연계된 조항을 다루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한글 맞춤법의 개별 조항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어생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과 주변의 국어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구조화된 점검표나 관찰 기록표, 성찰 일지, 자기 보고서 등의 다양한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상시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생활을 개선하고 이러한 성찰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통국어 1·2영역 공통) 다양한 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국어 실천의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경험이 가능하도록 학습활동을 설계하되, 엄격한 탐구 절차 준수를 강조하기보다 국어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탐색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적 사고의 과정을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활동에 반영할 사항들]

- 2022 중학교 교육과정의 [9국04-06]에서 학습한 '한글 맞춤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기본 원리에 대해 학습'한 것을 바탕
- 실제 국어생활에서 자주 혼동되는 표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의 조항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중점
- [10공국1-04-02]에서 학습한 음운 변동 지식과 연계된 조항을 다루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
- 학습자 스스로 자신과 주변의 국어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 구조화된 점검표나 관찰 기록표, 성찰 일지, 자기 보고서 등의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상시 평가

[참고]

* ‘한글 맞춤법’ 관련 성취기준

	2015	2022
중학교 국어	-	[9국04-06]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에 적용한다.
고등 국어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 2015에는 고등 국어에서만 ‘맞춤법’ 관련 성취기준이 있었지만, 2022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됨.
- 2015 고등 국어 ‘맞춤법’ 관련 성취기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 이해’는 2022에서는 중학교 성취기준으로 이동함.
- 2022 공통국어2의 ‘맞춤법’ 관련 성취기준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둠.

성취기준	고등 국어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해설	이 성취기준은 이전 학년까지 부분적으로 배운 ‘한글 맞춤법’을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일일이 학습하기보다는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을 선택적으로 다루며,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와 같이 한글 맞춤법 전체를 꿰뚫는 원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학습 요소	한글 맞춤법의 원리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④ 한글 맞춤법을 지도할 때에는 한글 맞춤법 규정 모두를 암기식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평소 국어사전이나 한글 맞춤법 규정 등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2015에서는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022에서는 ‘맞춤법의 원리 적용’이 강조되고 있음.
- 2015에서는 해설과 유의 사항에서 ‘맞춤법의 실생활 적용’과 ‘정확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가 나와 있지만, 2022에서는 성취기준에서 직접적으로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국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
- 2015 고등 국어에서의 맞춤법 단원은 2022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적용됨을 염두에 둘 것.
-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을 소단원에서 함께 다룬 교과서 단원 참고. 미래엔(신), 지학사(이), 좋은책(민)
- 성취기준 해설에서 음운 변동 지식과 연계된 조항을 다루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2015 언어와 매체 ‘음운 변동’ 관련 교과서 단원을 참고할 수 있겠음.

성취기준	언어와 매체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학습 요소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의 활용

출판사	단원	내용	비고
미래엔	2. 국어의 구조 (1) 음운	<p>탐구 2. 음운의 변동</p> <p>①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p> <p>② 탈락 - 자음군 단순화, ㄹ탈락, ㅎ탈락, ㅡ탈락</p> <p>③ 첨가 - ㄴ첨가</p> <p>④ 축약 - 거센소리되기</p> <p>(활동) 1. 음운의 변동 현상 탐구 2. 음운 변동 현상과 표기, 발음의 관계 탐구 3. 발음을 적고, 음운 변동 파악하기 4. 겹받침의 발음 탐구 5. 음운의 변동 현상을 활용한 사례 - '같이의 가치'</p>	p.58~66
천재교육	Ⅲ. 국어의 규범과 매체 언어의 성찰 1. 국어의 음운과 표준 발음 (2)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법	<p>*음운의 변동</p> <p>교체_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p> <p>탈락_자음군 단순화, ㄹ탈락, ㅎ탈락, ㅡ, ㅓ 탈락, ㅡ탈락</p> <p>첨가_ㄴ첨가,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첨가</p> <p>축약_ㅎ + ㄱ, ㄷ, ㅂ, ㅈ -> ㅋ, ㅌ, ㅍ, ㅊ</p> <p>*표준 발음법</p> <p>원칙 / 표준 발음법과 음운의 변동</p> <p>(활동) 1.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2. 자신의 발음 생활 성찰하기</p>	p.110~117
비상교육	3. 단어와 음운의 탐구 및 활용 (3)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p><음운 변동의 유형></p> <p>①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p> <p>② 탈락 - 자음군 단순화, ㅎ탈락, ㄹ탈락, 모음 탈락</p> <p>③ 첨가 - ㄴ첨가</p> <p>④ 축약 - 거센소리되기</p> <p>(활동) 2. 문자 메시지, 음운 관련 오류 알아보기 4. 표기 오류, 관련된 음운 변동 5. (방송 대본) 표준 발음 알아보기</p>	p.121~131
지학사	Ⅱ. 국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 (2) 음운의 변동	<p>①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모음 동화, 구개음화</p> <p>② 탈락 - 자음군 단순화, ㄹ탈락, ㅎ탈락, ㅡ탈락</p> <p>③ 첨가 - ㄴ첨가</p> <p>④ 축약 - ㄱ, ㄷ, ㅂ, ㅈ + ㅎ -> ㅋ, ㅌ, ㅍ, ㅊ</p> <p>(활동) 2.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음운 변동 알기 3. 시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알기 4. '닭'의 발음 5. 표기와 발음 다른 단어들, 관련 한글 맞춤법 조항</p>	p.56~62

성취기준별 단원 구성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해념] 4. 말과 글, 우리의 얼굴	문법	[10공국2-04-01] 과거 및 현재의 국어 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어 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1) 우리 말과 글의 역사 - (활동) 우리말의 역사, 우리말의 문화 발전 (2) 한글 맞춤법의 원리 - (활동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 (활동 2)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 (활동 3) 한글 맞춤법과 언어생활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국어 문제를 해결한다.	(3) 작문 관습과 글쓰기 - (활동) 작문 관습과 쓰기 전략, 쓰기 과정과 전략의 점검
	쓰기	[10공국2-03-01]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작문 관습의 특성을 이해하고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며 책임감 있게 글을 쓴다.	
[창비] 3. 국어의 역사와 한글 맞춤법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1) 국어의 변화와 발전 - (활동 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비교하기 - (활동 2) 국어의 변화 발전 모습 탐구하기 - 세종어제훈민정음 - 용비어천가 (2) 함께 지키는 한글 맞춤법 - (활동 1) 생활 속 표기 문제 해결하기 - (활동 2) 생활 속 띄어쓰기 문제 해결하기 - (활동 3) 국어생활 성찰하기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생활 성찰	
[미래엔] 3. 국어의 어제와 오늘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01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02 한글 맞춤법과 오늘날의 국어생활 - (원리 탐구->탐구 적용)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 헛갈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생활 성찰	
[동아] 3. 언어와 매체의 변화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01 국어의 변화 - 세종어제훈민정음 02 한글 맞춤법의 이해 - 한글 맞춤법과 올바른 표기 03 매체의 변천과 수용 - 변화된 매체, 제대로 읽기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생활 성찰	
	매체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 소통 문화에 끼친 영향	
	매체	[10공국2-06-01] 매체 비평 자료 비판적 수용, 비평자료 생산	
	읽기	[10공국2-02-01] 복합양식, 필자의 관점, 의도, 표현방법	
[비상(강)] 4. 살아 숨 쉬는 국어과 매체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01 변화하는 국어와 매체 - 변화하는 국어
	매체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 소통 문화에 끼친 영향	1 중세 국어의 특징 알아보기 2 국어 자료 탐구하기 - 변화하는 매체와 소통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생활 성찰	02 한글 맞춤법과 국어생활 - 나는 한글 맞춤법 탐구자 - 헛갈리는 소리·형태 - 헛갈리는 띄어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에 헛갈리는 표기 - 한글 맞춤법 규정의 적용 - 나는 생활 속 맞춤법 지킴이
[비상(박)] 2. 미래로 이어지는 국어의 발자취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01 국어와 매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중세 국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어의 변화 이해하기 - (활동 2) 매체의 변화가 소통 문화에 끼치는 영향 탐구하기 - (활동 3) 오늘날의 언어문화와 소통 문화 성찰하기 02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한글 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 (활동 2)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하고 자신의 국어 생활 성찰하기
	매체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 소통 문화에 끼친 영향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 생활 성찰	
[지학사] 4. 우리 언어생활의 변화와 발전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1) 국어가 걸어온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어제훈민정음 - 용비어천가 (2) 바르고 정확한 국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글)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적용(1,3,4,5,6장) (3) 매체와 함께하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와 소통 문화의 변화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 생활 성찰	
	매체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 소통 문화에 끼친 영향	
[천재(수)] 2. 바람직한 언어생활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 생활 성찰	(1) 우리말 바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1장, 3장, 4장, 5장) (2) 우리말과 매체의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국어의 변화 이해하기 - (활동 2) 매체의 변화가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끼친 영향 탐구하기 (3) 효과적으로 의견 전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성분표,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_학생 발표 - 건강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 영양 성분 표기_학생 글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매체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 소통 문화에 끼친 영향	
	듣말	[10공국2-01-01] 청중에 발표, 질문에 효과적인 답변	
	쓰기	[10공국2-03-02] 논증 요소에 따른 분석, 논증하는 글	
[천재(중)] 4. 삶과 함께하는 국어	문법	[10공국2-04-01] 국어의 변화(과거 현재), 국어 발전에 참여	(1) 국어의 변화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국어 자료 탐구하기 - (활동 2) 국어 문화 발전에 참여하기 (2) 올바른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 (활동 2) 한글 맞춤법 생활 속에 적용하기 (3) 바로 읽고, 함께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공동 보고서 쓰기)
	문법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 국어 생활 성찰	
	읽기	[10공국2-02-01] 복합양식, 필자의 관점, 의도, 표현방법	
	쓰기	[10공국2-03-03] 복합양식 자료, 공동 보고서	

<기출 평가 문제>

키워드: 한글 맞춤법의 원리 탐구(이해와 심화), 국어 생활 성찰, 국어 문제 해결. 맞춤법 오류, 한글 맞춤법의 총칙(조항, 기본 원리), 혼동되는 표기나 띄어쓰기, 구조화된 점검표나 관찰 기록표, 성찰 일지, 자기 보고서 등의 다양한 평가 도구 활용

2024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1. 표제어의 표기 이해하기 12. 표제어의 순서 파악하기
2023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법]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11.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이해하기 12. 한글 맞춤법 제32항 이해하기
2023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11.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12.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2023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14.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 파악하기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5~36] 준말 35.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36. 표준어 규정을 적용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9. 한글 맞춤법의 적용
2022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4.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 파악하기 15. 품사와 띄어쓰기 파악하기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5.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2022학년도	6월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3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2021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1. 사이시옷의 표기 이해하기 12. 사이시옷의 표기 적용하기
2021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2021학년도	6월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띄어쓰기)
2020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3.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2020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1.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12.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이해하기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5.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이해하기
2019학년도	6월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3.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
201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2. 의존 명사, 조사, 어미의 띄어쓰기
2019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1. 한글 맞춤법 탐구하기 12.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2019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4.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띄어쓰기 이해하기
2018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2. 한글 맞춤법의 규정 이해하기
2018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4. 한글 맞춤법
2018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5. 혼동하기 쉬운 어휘 구별
201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2. 한글 맞춤법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2. 띄어쓰기 탐구하기
2016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2.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2016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하기 13. 띄어쓰기 파악하기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2.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2016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4. '윗', '위', '웃'의 표기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한글 맞춤법의 이해(받침소리)

EBS 2024학년도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 38. 한글 맞춤법
- 39. 한글 맞춤법, 모음의 제자 원리

EBS 2023학년도 FINAL 실전모의고사

- 36. (한글 맞춤법의 이해)

EBS 2023학년도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_2회

- 39. 띄어쓰기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언어 3] 단어 1 [1~6] - 품사의 특성 - 용언,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품사의 특성 - 용언, 관계언, 단어의 구성 요소,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EBS 2022학년도 FINAL 실전모의고사 국어영역 국어

- [37] 띄어쓰기
- [38] 한글 맞춤법

2021. EBS 국어 문법의 원리 수능 국어 문법 180제

- 6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 67.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
- 68. 외래어 표기법
- 69.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
- 70. 로마자 표기법
- 71. 로마자 표기법

2021. EBS 국어 문법의 원리 수능 국어 문법

06강	국어 규범
-----	-------

- 1.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띄어쓰기)
- 2. 단어의 이해
- 3. 단어의 이해
-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의 실제
- 5.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 6. 표준 발음법 이해, 적용
- 7.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 8. 표준 발음법 적용
- 9.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 10. 표준 발음법 이해, 적용
- 11.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 12. 표준 발음법 적용
- 1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의 실제
- 14. 표준 발음법 이해, 적용
- 15. 표준 발음법 적용

[2021 대비 EBS] 기출의 미래 국어(언어·화법·작문)

3부	국어의 규범
2강	한글 맞춤법과 어법

2018 EBS 고등예비과정_국어

한글 맞춤법[01~13]

[EBS 2017] 2017 만점마무리(5회분)_3회

12. 한글 맞춤법 적용

[2017 EBS] 수능완성

14. 음운 변동과 표기 오류의 상관성

[2016 EBS] 만점 마무리

13.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14. 띄어쓰기 규정 적용

[2016 EBS] N제(270제)

67.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70.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2016 EBS] 인터넷 수능(문법)

1.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2015 인터넷수능-국어영역-문법다지기B

06강 한글 맞춤법 1

07강 한글 맞춤법 2

2015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

02 1 한글 맞춤법

- ① ‘윗어른’은 비표준어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어서 표제어로 선정되었겠군.
- ② ‘웬지’, ‘윗어른’, ‘이상^결정’의 순서로 사전에 배열되어 있겠군.
- ③ 접사 ‘-이-’는 명사 ‘이’와 어미 ‘-이’ 사이에 수록되어 있겠군.
- ④ 어미 ‘-이’와 접사 ‘-이-’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겠군.
- ⑤ ‘이상^결정’을 보니 전문어의 경우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말도 표제어로 실려 있겠군.

<해설>

11. [출제 의도] 표제어의 표기 이해하기 ④

‘뒤집히다’는 접두사 ‘뒤-’와 피동 접사 ‘-히-’가 동시에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뒤집-히다’와 같이 피동 접사 앞에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 ① ‘1월’과 ‘9월’은 사전에 ‘일월’과 ‘구월’로 표기되므로 표제어가 가나다순으로 배열된다는 원칙에 따라 ‘1월’보다 ‘9월’이 먼저 제시된다.
- ② ‘새해’는 ‘새’와 ‘해’가 합쳐진 합성어이므로 ‘새-해’와 같이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 ③ ‘비웃음’은 ‘비웃다’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비웃-음’과 같이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 ⑤ ‘기쁨’은 ‘기쁘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지만 ‘기쁘-ㅁ’과 같이 구성 성분이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아 붙임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기쁨’으로 표기한다.

12. [출제 의도] 표제어의 순서 파악하기 ③

표제어가 동음이의어일 경우 어휘 형태, 문법 형태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법 형태 중에서는 어미, 접사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전에는 명사 ‘이’가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어미 ‘-이’가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 순서로 접사 ‘-이-’가 수록되어 있다.

- ① 『표준국어대사전』은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표준어 표제어의 경우 ‘→’를 활용하여 표준어의 뜻풀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윗어른’은 비표준어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어서 선정된 표제어임을 알 수 있다.
- ② 표제어 배열에 있어 중성의 경우 ‘내, 기, |’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으므로 ‘웬지’, ‘윗어른’, ‘이상^결정’의 순서로 사전에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는 결합하는 부분에 ‘-’를 붙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어미 ‘-이’와 접사 ‘-이-’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만 쓸 수 있는 표제어임을 알 수 있다.
- 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어의 경우 구까지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상^결정’은 구이지만 전문어이기 때문에 표제어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밝히는 조항으로, 한글 맞춤법은 이 조항에 따라 표준어를 표음 문자인 한글로 올바르게 적는 방법이다.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은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다. 이는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음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표음 문자인 한글의 기본 기능에 충실한 원칙이다. 이를테면 [나무]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ㄴ’과 ‘ㅏ’로 조합된 한 음절과 ‘ㅍ’과 ‘ㅓ’로 조합된 한 음절을 그대로 ‘나무’로 적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체언 ‘빛’에 다양한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비치’, ‘빛또’, ‘빔만’ 등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적으면 ‘빛’이라는 하나의 말이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실질 형태소의 본 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 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서 어법에 맞도록 ‘빛이’, ‘빛도’, ‘빔만’ 등으로 적으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각각의 형태소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이렇게 체언과 조사를 구분해서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칙은 한글 맞춤법 제14항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 제15항에 따르면, ‘먹어서’는 [머거서]로 발음되지만 실질 형태소인 어간 ‘먹-’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 ‘-어서’를 구별하여 적는다.

한편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드는 준말의 표기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제32항에서는 어근이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 예로 ‘어제저녁’이 줄어들어 ‘엇저녁’으로도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어제저녁’의 준말의 발음인 [얼찌녁]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 원래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제저녁’과의 형태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엇저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엌’은 각 음절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이다.
- ② 한글은 음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모이’는 ‘ㅁ’과 ‘ㅣ’로 조합된 한 음절과 ‘ㅣ’로 된 한 음절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 ④ ‘웃으면’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경계가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경우이다.
- ⑤ ‘갈비탕을 시켜 먹었다’와 ‘갈비탕을 식혀 먹었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의미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A]에 들어갈 예만을 고른 것은? [3점]

< 보기 >

[탐구 과제]

○ 가을에 곡식을 ㉠걷다(←거두다).
 ○ ㉡저녁놀(←저녁노을)이 아름답다.
 ○ 인니는 내년엔 대학생이 ㉢돼(←되어).
 ○ 영수는 항상 인형을 ㉣갖고(←가지고) 다닌다.
 ○ 우리는 ㉤옛그저께(←어제그저께)까지도 친하게 지냈다.

[탐구 과정]

본말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말인가?

예

본말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 [] [A]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11.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이해하기 ①

- ‘부엌’의 발음은 [부억]이다.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부억’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이는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음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표음 문자인 한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모이’는 자음 ‘ㅁ’과 모음 ‘ㅛ’로 조합된 한 음절 ‘모’와 ‘ㅣ’로 된 한 음절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④ ‘웃으면’은 실질 형태소 ‘웃-’과 형식 형태소 ‘-으면’의 경계가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 ⑤ ‘갈비탕을 시켜 먹었다’와 ‘갈비탕을 식혀 먹었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시켜’와 ‘식혀’의 의미 구별이 어려우므로 적절하다.

12.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제32항 이해하기 ②

- ㉠ ‘걷다’는 본말 ‘거두다’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 ‘ㅌ’가 줄어들고 자음 ‘ㄷ’만 남는 경우로, 자음 ‘ㄷ’을 앞 음절 ‘거’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므로 적절하다.
- ㉣ ‘갖고’는 본말 ‘가지고’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 ‘ㅣ’가 줄어들고 자음 ‘ㅈ’만 남는 경우로, 자음 ‘ㅈ’을 앞 음절 ‘가’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므로 적절하다.

- ㉠ ‘저녁놀’은 본말 ‘저녁노을’이 체언 ‘저녁’과 체언 ‘노을’이 결합한 말로 본말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 ‘꽤’는 본말 ‘되어’의 어간 ‘되-’와 어미 ‘-어’가 줄어든 말로 본말의 어간에서 끝모음의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엿그저께’는 본말 ‘어제그저께’가 체언 ‘어제’와 체언 ‘그저께’가 결합한 말로 본말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예를 들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있이’, ‘있만’을 발음대로 적으면 ‘이피’, ‘임만’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적힌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있’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형태를 ‘있’으로 고정하여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먹어’, ‘먹는’처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별하여 적는다.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는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 (ㄱ)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마감 시간을 확인했다.
- (ㄴ) 방에 들어간 그는 사라진 의자를 발견했다.

(ㄱ)에서 ‘웃음(웃--+음)’은 접미사 ‘-음/-口’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이와 달리 ‘마감(막--+암)’은 접미사 ‘-암’이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ㄴ)에서 ‘들어간’은 앞말인 ‘들어’에 ‘들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지만, ‘사라진’은 앞말이 본뜻에서 떨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아 소리대로 적었다.

[A] 한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는 어미 ‘-(으)ㄴ지, -(으)르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한번’이라고 쓰지만, ‘번’이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처럼 띄어 쓴다.

11.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풀이 ㉠쓰러진 사이로 ㉡작은 꽃이 ㉢마중을 나왔다.
-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 ① ㉠: 앞말이 ‘쓸다’라는 본뜻에서 떨어져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② ㉡: 용언의 어간 ‘작-’과 어미 ‘-은’이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 ③ ㉢: 접미사 ‘-웅’이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④ ㉣: ‘끝’이라는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 ⑤ ㉤: 어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후에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아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 ②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 ③ 무엇보다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
- ④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 만난다.
- 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명 몫의 일을 해낸다.

<해설>

11.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⑤

어근 '민-'과 접미사 '-음'이 결합한 '민음'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말이다. 접미사 '-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12.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③

[A]에서 '지'는 어미 '-(으)ㄴ지, -(으)르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부터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에서 '할 지'의 '지'는 어미 '-르지'의 일부이므로 '할지'라고 붙여 써야 한다.

- ① '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에서 '한번'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한번'이라고 써야 한다.
- ②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에서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④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 만난다.'에서 '번'이 일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 번'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 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명 몫의 일을 해낸다.'에서 '부지런한지'의 '지'는 어미 '-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준말은 본말 중 일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말이다. 한글 맞춤법은 준말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중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열매를) 따--아→따/*따아’, ‘따--았--다→땀다/*따았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ㅏ, ㅑ’가 줄어들지 않는다. ‘(꿀물을) 젓--어→저어/*저’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제34항 [붙임 1]에서는 어간 끝 모음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 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손을) 떼--어→떼어/떼’에서 보듯이 본말과 준말 모두로 적을 수 있다. 다만 모음이 줄어들어서 ‘ㅐ’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차-’와 ‘-이-’의 모음이 줄어든 ‘채-’의 경우 ‘(밭에) 채--어→채어/*채’에서 보듯이 모음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 것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표준어 규정 제14항에서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음을, 제16항에서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음을 제시하고 있다. ‘온갖/*온가지’는 전자의 예이고, ‘(일을) 서두르다/서둘다’는 후자의 예이다. 다만 후자에서 용언의 어간이 줄어든 일부 준말의 경우, 준말이 표준어로 인정되더라도 준말의 활용형은 제한되는 예도 있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준말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두르다’의 준말 ‘서둘다’는 자음 어미 ‘-고, -지’가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둘고’, ‘서둘지’가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둘어’, ‘*서둘었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규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밭을) 매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매어’의 경우, 준말인 ‘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병이) 낫--아’의 경우, ‘ㅏ’가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③ ‘(땅이)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패다’의 ‘ㅐ’가 모음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패’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④ ‘(잡초를) 베--었--다’와 ‘(베개를) 베--었--다’의 경우, 준말의 형태인 ‘뻬다’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⑤ ‘(강을) 건너--어’와 ‘(줄을) 서--어’의 경우, ‘ㅑ’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므로 본말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학생: 선생님, '-에요'와 '-예요'는 어떻게 구별하여 쓰면 되나요?

선생님: '-에요'는 설명·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는 것입니다.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어요.

학생: 네.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니?'에 대한 대답으로 '교실에요.'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맞춤법에 맞는 표현인가요?

선생님: 네, 그때의 '-에요'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이므로 맞춤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A: 책을 어디에 두고 왔니?
B: 집().

2. 여기는 제가 갔던 식당이 아니().

3. 그때 그를 도와준 건 이 학생().

학생: 1번은 (㉠), 2번은 (㉡), 3번은 (㉣)입니다.

선생님: 모두 잘 이해했네요.

- | | ㉠ | ㉡ | ㉣ |
|---|----|-----|-----|
| ① | 에요 | 에요 | 이에요 |
| ② | 에요 | 에요 | 예요 |
| ③ | 에요 | 예요 | 이에요 |
| ④ | 예요 | 이에요 | 예요 |
| ⑤ | 예요 | 에요 | 이에요 |

15.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만을 [예문]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자료]

보다¹ 「동사」
 「1」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2」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3」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
 보다² 「부사」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
 보다³ 「조사」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문]

〔그는 그 책을 처음 보다.....㉠〕
 그는 그 책을 처음보다.....㉡〕
 〔그는 나 보다 두 살 위이다.....㉢〕
 그는 나보다 두 살 위이다.....㉣〕
 〔그는 자기부터 보다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부터보다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해설>

14.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 파악하기 ①

㉠은 책을 두고 온 곳, 처소에 해당하는 ‘집’ 뒤에 붙는 것이므로 처소의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은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는 것이므로 ‘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은 받침이 있는 체언인 ‘학생’ 뒤에 결합하는 것이므로 ‘이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15. [출제 의도] 품사와 띄어쓰기 파악하기 ②

㉠, ㉡의 ‘보다’는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동사이며, ㉠, ㉡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이다. ㉢, ㉣의 ‘보다’는 ‘나’라는 체언에 결합하여 ‘~에 비해서’라는 뜻을 나타내며 조사이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 ㉣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이다. ㉤, ㉥의 ‘보다’는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부사이며, ㉤, ㉥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이시옷이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ㅅ’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우선, 두 단어가 결합하는 형태가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단일어이거나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고,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나 한자어만으로 구성된 합성어의 경우에도 사이시옷은 표기되지 않는다. 단,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라는 한자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음운론적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둘째,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셋째,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래웃’과 달리 ‘아랫마을’은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② ‘고깃국’과 달리 ‘해장국’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겠군.
- ③ ‘코마개’와 달리 ‘콧날’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④ ‘우웃빔’과 달리 ‘오렌지빔’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결합 형태를 고려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겠군.
- ⑤ ‘모래땅’과 달리 ‘모랫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12.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탐구 과제]

[탐구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단어들의 올바른 표기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해+살 → () ○해+님 → ()

[탐구 자료]

살² 「명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해, 별, 불 또는 흐르는 물 따위의 내비치는 기운.

살⁻⁶ 「접사」

온전하지 못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님⁴ 「접사」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⁵ 「명사」

(일부 속담에 쓰여) '임'을 이르는 말.

[탐구 결과]

'해'와 '살'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는 (㉠)이고, '해'와 '님'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는 (㉣)입니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결합한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 ① | 햇살 | 해님 | 접사 |
| ② | 햇살 | 해님 | 명사 |
| ③ | 햇살 | 햇님 | 접사 |
| ④ | 해살 | 해님 | 명사 |
| ⑤ | 해살 | 햇님 | 명사 |

<해설>

11. [출제 의도] 사이시옷의 표기 이해하기 ③

'룻날'은 '코'와 '날'이 결합해 [콘날]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우윳빛'은 한자어 '우유'와 고유어 '빛'이 결합된 형태이고, '오렌지빛'은 외래어 '오렌지'와 고유어 '빛'이 결합된 형태이다. '오렌지빛'은 '우윳빛'과 달리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⑤ '모래땅'은 '모래'와 '땅'이 결합된 형태로 뒷말의 첫소리가 본래 된소리이다. '모랫길'은 '모래'와 '길'이 결합하여 [모래길/모랫길]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12. [출제 의도] 사이시옷의 표기 적용하기 ①

'해'와 '살'이 결합할 때, 이때의 '살'은 [탐구 자료]의 '살2'에 해당하는 명사이므로 ㉠은 합성어이다.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는데, '해'와 '살'이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에 들어갈 말은 '햇살'이다. '해'와 '님'이 결합할 때, 이때의 '님'은 [탐구 자료]의 '-님4'에 해당하는 접사이므로, ㉡은 파생어이다. 합성어와 달리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해님'의 형태가 적절하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해님'이고 ㉣에 들어갈 말은 '접사'이다.

[11~12]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음운 변동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음운의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덱’은 [여덜]로 발음되는데 겹받침 중 ‘ㅂ’이 탈락되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숨이불’은 [숨 : 니불]로 발음되는데 ‘ㄴ’이 첨가되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학생: 그런데 저는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좋겠다.’라는 문장의 ‘커서’에서 ‘ㄹ’이 탈락되었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겠죠?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용언의 활용을 예로 들어 알아보시다. 용언 어간 끝의 모음 ‘ㅏ, ㅑ’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 ‘ㅏ, ㅑ’가 탈락하는 경우, 용언 어간 끝의 모음 ‘ㄹ’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 어간의 끝소리 ‘ㄹ’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음운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어간의 끝소리 ‘ㄴ, ㅁ’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음운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령 앞에서 말한 ‘커서’의 경우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낱은’을 ‘나은’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생: 아, 그럼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볼게요.

11. [A]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례	음운 변동	음운의 개수 변화
①	풀잎[풀립]	축약, 첨가	늘어남
②	흙화덕[흐과덕]	교체, 탈락	줄어듦
③	맞춤옷[만추몫]	축약, 탈락	줄어듦
④	옛이야기[옌 : 니야기]	교체, 첨가	늘어남
⑤	달맞이꽃[달마지꼇]	교체, 축약	줄어듦

12.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관객이 많으니 미리 줄을 서라.
 ㉡: 돌아오는 기차표는 네 것만 꿂어라.
- ② ㉠: 눈을 떠 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다.
 ㉡: 내가 집에 빨리 가서 아쉬웠다.
- ③ ㉠: 체육 시간에는 교실 불을 꺼 두자.
 ㉡: 오늘은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자.
- ④ ㉠: 지금 마는 김밥은 어머니께 드릴 점심이다.
 ㉡: 독서로 쌓은 지식은 삶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 ⑤ ㉠: 아버지 대신 빨래를 너는 모습이 보기 좋다.
 ㉡: 가을빛을 담고 있는 감나무 열매를 본다.

<해설>

11. [출제 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④

‘옛이야기[엔 : 니야기]’는 첨가에 해당하는 ‘ㄴ첨가’와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이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 의도]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이해하기 ②

㉠의 ‘떠’는 어간 ‘뜨-’의 모음 ‘-’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의 ‘가서’는 어간 ‘가-’의 모음 ‘ㅏ’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ㅏ’가 탈락한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의 ‘서라’는 어간 ‘서-’의 모음 ‘ㅓ’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ㅓ’가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의 ‘끓어라’는 어간 ‘끓-’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의 ‘꺼’는 어간 ‘끄-’의 모음 ‘-’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의 ‘신고’는 어간의 끝소리 ‘ㄴ’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의 ‘마는’은 어간 ‘말-’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의 ‘쌍은’은 어간 ‘쌍-’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의 ‘너는’은 어간 ‘널-’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의 ‘담고’는 어간의 끝소리 ‘ㅍ’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12. 윗글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 ② ㉠: 모두들 그의 정신력을 높이 칭찬했다.
- ③ ㉡: 나는 그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 ④ ㉢: 그는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았다.
- ⑤ ㉣: 그들은 새로 만든 도로의 너비를 측정했다.

<해설>

11.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탐구하기 ㉢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실질 형태소, ‘만’과 ‘은’은 보조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형태를 밝히어 적었다.

12.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

‘높이’는 용언의 어간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12.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너는 ㉠무얼 좋아하니?
- ㉡이건 값이 너무 비싸다.
- ㉢너희 사진은 어디에 있니?
- 나는 항상 ㉣여기에 있을게.
-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의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과제: 다음 예문은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를 통해 띄어쓰기 규정을 알아보까요?
 ㉠ 너는 일밖에 모르니?
 ㉡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
 ㉢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해.
 ㉤ 청군 대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했다.

- ① ㉠: ‘일’과 ‘밖에’를 붙여 쓴 것을 보니, 조사는 붙여 쓰는군.
 ② ㉡: ‘두’와 ‘자루’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군.
 ③ ㉢: ‘웃고만’과 ‘있었다’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본용언끼리는 띄어 쓰는군.
 ④ ㉣: ‘아는’과 ‘척’을 띄어 쓴 것을 보니,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군.
 ⑤ ㉤: ‘청군’, ‘대’, ‘백군’을 각각 띄어 쓴 것을 보니, 두 말을 이어 줄 때에 쓰이는 말은 띄어 쓰는군.

<해설>

12.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하기 ⑤

- ㉡는 체언 ‘그것’과 조사 ‘이’가 어울려 줄어진 경우로 ㉡(제33항)의 규정을 적용한 적절한 사례이다.
 ① 체언 ‘무엇’과 조사 ‘을’이 어울려 준 대로 적은 경우로 ㉡에 해당한다.
 ② 체언 ‘이것’과 조사 ‘은’이 어울려 준 대로 적은 경우로 ㉡에 해당한다.
 ③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로 ㉠과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체언 ‘여기’와 조사 ‘에’를 구별하여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13. [출제 의도] 띄어쓰기 파악하기 ③

- 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웃고만 있었다’의 본용언 ‘웃고’에 보조사 ‘만’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 ‘있었다’를 띄어 쓴 것이다.
 ④ ‘척’은 ‘그럴 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